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허지영¹⁾ 안지령²⁾

요약

본 연구는 유아기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양육효능감,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고,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P시에 소재한 만 3세~만 5세 유치원 유아들의 어머니들이며, 이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전체 310부 중 280부가 회수 되었으며,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6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 하위영역인 일상생활장애, 내성, 가상세계지향성은 양육효능감(애정, 일상체계조직, 훈육, 놀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 하위영역 중 일상생활장애, 금단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대인적응성, 인기도,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스마트폰이 자녀의 양육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프로그램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정도, 양육효능감, 유아의 사회적 능력

* 본 연구는 2016년도 위덕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1) 아이클 유치원 원감

2) 위덕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디지털시대를 열게 되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현대 디지털문명의 발전은 생활상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방식의 변화, 시공간 제약의 극복, 패러다임의 전환 등 사회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생활필수품이 되었다고 해도 될 만큼 현대인의 삶에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생활을 지배하는 현실에서 이것이 성인과 유아에게 있어 어떠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는지,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무선통신 가입자 현황 통계(2015)에 의하면 이미 2014년 9월에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4,000만 명이 넘어섰으며,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83.0%로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시장조사 기관인 TNS인프라테스트와 구글의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56개국 성인 인구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평균 약 60%에 달했다”(연합뉴스, 2015. 7. 8).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사람들은 직접통화보다 SNS나 문자로 서로 대화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게임을 즐기고, 책보다는 인터넷검색으로 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편리성과 강점들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사용과 과도한 몰입을 이끌어내며, 스마트폰에 빠져들고 의존성을 높여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김병년·최홍일, 2013).

스마트폰중독이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는 현상)과 내성(스마트폰을 점점 더 많은 시간 동안 사용하게 되어 나중에는 많이 사용해도 만족감이 없는 상태)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스마트쉼센터, 2015). 한국정보화진흥원(2014)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평균 4시간이었으며, 스마트폰 중독자의 이용시간은 하루 7.3시간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시공간적으로 제약이 많은 어머니들이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고 하였다(배은해, 2014). 서혜성과 김연하(2014)도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청소년이 아닌 오히려 성인층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중독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스마트사용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스마트폰을 경험하는 영유아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원석과 성영화(2012)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는 부모와 함께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모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자녀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현은자, 김태영, 조메리명희와 박은미(2011)의 가정에서 디지털 모바일 기기 사용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모바일기기를 별 생각 없이 사용하거나 걱정은 조금 하지만 그냥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기기 사용이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부모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디지털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가족일수록 식사를 함께하는 정도나 여가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바 있다(정은희, 2008).

그러므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행동이며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또한 양육행동과 함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다른 변인은 양육효능감이다. 양육효능감이란 부모자신의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신념이며, 자신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주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 능력을 설명하는 주요한 인지적 요소이다(장여옥, 2015).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상호작용적인 반응을 예측하게 하는 강력한 요인으로써, 높은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신호를 잘 이해하고 긍정적이며 반응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온정적인 양육행동, 자녀를 모니터링 하는 양육행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낮은 양육효능감은 아동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 및 수동적·소극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대처, 양육기술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 부족과 관련되어 있다(최형성, 2005). 이러한 선행연구를 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교육·양육에 영향을 주며, 유아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정도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과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현은자·조메리명희·조경선·김태영(2013)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게 나타나며,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또 김지혜(2013), 김영은(2013), 배은혜(2014), 장여옥(2015)도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과다사용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낮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정도와 어머니의 양

육효능감의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유아들의 발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유아기는 전인적인 발달을 지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건강한 신체와 인지,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능력 등이 형성된다. 아동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회를 배우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환경 속에서 사회와 그 구성원이 요구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또래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에 적응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한 사회적 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능력은 미래 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능력으로 강조되고 있다(김현미·도현심, 2004).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이란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으로(조부월, 2009), 사회적 능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육자이고, 유아기가 발달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반응하는 많은 방법을 배우고 시도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아기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박송림(2012)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머니가 인지하고 있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 전체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스마트폰의 중독정도는 유아에게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접하게 하였고,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허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이원석·성영화, 2012).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사회심리학적 요인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적극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권연희, 2003; 윤은미, 2004). 또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애착 형성과 언어발달,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신의진, 2009). 어머니가 스마트폰에 많이 몰입하여 사용한다면 자녀와의 애착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아 자녀는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이 어려워 유아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지애, 2014). 이윤미(2014)도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유아의 주의집중 및 자기조절력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순화(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스마트기기 사용 정도에 따른 유아의 공격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유아의 대인, 대물, 언어 공격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이순화, 2013; 이주연, 2011; 임연정, 201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정적인 관계성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유아교육에서 스마트폰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인식 연구(이원석·성영화, 2012), 유아의 스마트폰·태블릿PC 이용실태와 부모인식과 유아의 중독적 특성에 관한 연구(임영희·김성현, 2014),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자기조절력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이윤미, 2014; 임경심·김수향·홍경, 2014)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스마트폰 인식과 사용,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은 자기효능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이영·최윤희, 2015).

위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한 사회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유아기에 사회적 능력(자기조절력,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개인변인인 유아의 대인적응성, 인기도, 지도력,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박지애(2014)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 및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유아는 어머니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혼자서 놀거나 아동 스스로 정서 인식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윤미(201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습관도 높았으며,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이 많을수록 유아의 주의집중 및 자기조절력이 낮아진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환경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휴대전화, 스마트폰의 중독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부재로 대인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회적 위축 현상도 발생 시키며 이러한 현상이 가정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에게서 발생하게 되면,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김지혜, 2013, 배은혜, 2014; 장여옥, 2015; 현은자·조메리명희 외,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는 달리,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의 영향 변인을 살펴보고, 양육자의 심리적 요인인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 세 가지 변인의 관계와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 및 기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세 가지 변인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부모교육의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만의 가치를 두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교육과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프로그램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P시에 소재한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세~만 5세 유아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는 어머니 310명을 대상으로 총 31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들 중 280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불성실한 질문지 19부를 제외한 총 261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자녀 성별	남	123	47.1
	여	138	52.9
자녀 연령	만3세	103	39.5
	만4세	75	28.7
	만5세	82	31.4
	무응답	1	0.4
	26-30세	17	6.5
어머니 연령	31-35세	87	33.3
	36-40세	131	50.2
	41세 이상	26	10.0
	고졸	79	30.3
어머니 학력	전문대졸	118	45.2
	대졸	58	22.2
	대학원이상	6	2.3
	100만원 미만	1	0.4
월평균 수입	100-200만원	20	7.7
	200-300만원	134	51.3
	400만원 이상	106	40.6
	전업주부	139	53.3
어머니 직업	근로직	13	5.0
	서비스업	24	9.2
	사무직	24	9.2
	영업직	11	4.2
	전문직	35	13.4
	기타	15	5.7
	1개월 미만	1	0.4
스마트폰 사용기간	6개월-1년	2	0.8
	1-3년	27	10.3
	3년 이상	231	88.5
	30분 미만	11	4.2
하루사용정도	30분-1시간	40	15.3
	1-2시간	68	26.1
	2-3시간	77	29.5
	3시간 이상	65	24.9

(표 1 계속)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이용하는 서비스	일정관리	9	3.4
	알람시계	3	1.2
	정보검색 혹은 웹서핑	195	74.7
	음악듣기	9	3.4
	게임오락	18	6.9
	뉴스	9	3.4
	동영상보기	7	2.7
	기타	11	4.3
전체		261	100.0

자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47.1%, 여자가 52.9%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 분포는 만3세가 39.5%로 가장 많았고, 만5세 31.4%, 만4세 28.7% 순으로 나타났다. 모 연령 분포는 36-40세가 50.2%로 가장 많았고, 모 학력은 전문대졸이 45.2%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수입은 200-300만원이 51.3%로 가장 많았고, 모 직업은 전업주부가 53.3%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3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88.5%로 가장 많았고, 하루사용정도는 2-3시간이 29.5%, 이용하는 서비스는 정보검색 혹은 웹서핑이라는 응답이 74.7%로 가장 많았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 도구는 세 가지로 성인 스마트폰 중독자가진단 척도, 어머니 양육효능감 척도(K-EGSCP), 유아의 사회적 능력척도이다.

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정도 자가진단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성인스마트폰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 수는 총 15문항으로 일상생활장애 5문항, 가상세계지향성 2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이라는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단척도의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고,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정도를 측정하는 하위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계	Cronbach's α
일상생활장애	1, 5, 9, 12, 15*	5	.767
가상세계지향성	2, 6	2	.618
금단	4*, 8, 11, 14	4	.727
내성	3, 7, 10*, 13	4	.781
전체		15	.906

주: *은 역채점 문항

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K-EGSCP)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평가하기 위해 Meunier와 Roskam(2009)의 양육효능감 척도인 Echelle Globale du Competence Parentals(EGSCP)를 성지현·백지희(2011)가 번안·수정한 도구인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K-EGSCP)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척도로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이다.

성지현·백지희(2011)은 EGSCP는 애정, 일상체계조직, 훈육, 놀이, 교육의 다양한 양육 상황에서의 부모가 가진 영역별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라고 하였다. 양육효능감 척도의 문항수는 총 2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놀이 5문항, 훈육 5문항, 애정 5문항, 일상체계조직 4문항, 교육 3문항이다. 진단척도의 각 문항은 6점 Likert척도(1점-전혀 아니다, 2점-아니다, 3점-조금 아니다, 4점-조금 그렇다, 5점-그렇다, 6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하위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계	Cronbach's α
애정	10, 11, 12, 13, 14	5	.776
일상체계조직	15, 16*, 17, 18*	4	.718
훈육	1*, 2*, 3, 4, 22*	5	.775
놀이	5, 6, 7, 8, 9	5	.881
교육	19*, 20*, 21*	3	.690
전체		22	.853

주: *은 역채점 문항

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oh와 Falbo(1999)가 개발한 사회적 능력 척도를 번역하여 수정·보안한 서유진(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 척도는 대인적응성 11문항, 인기도 및 지도력 8문항, 사회적 참여 5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진단척도의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1점-거의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 하위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계	Cronbach's α
대인적응성	1*, 3, 5*, 7, 10*, 12, 14*, 16, 19*, 21*, 24*	11	.813
인기도/지도력	2, 6, 8, 11, 15, 17, 20, 22	8	.789
사회적 참여	4, 9, 13, 18, 23	5	.833
	전체	24	.711

주: *은 역채점 문항

라.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정도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시작 전 다수의 개방형 질문문항을 구성한 후 예비 조사에 참여했던 어머니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본 연구의 특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주요 문항인 3개의 질문 문항으로 정리를 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표 5> 개방형 질문 목록

순서	질문내용
1	스마트폰이 갑자기 없어졌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까?
2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자녀 앞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그 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연구 절차

가. 예비 조사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는 2015년 12월 16일~12월 23일까지 유치원의 만 4세 1개 반 유아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지 내용의 이해도와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총 21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는 없었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 또한 없다고 응답하여 본 설문지를 수정 없이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본 조사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1월 11일~1월 29일까지 포항시에 있는 3개 유치원에서 어머니 3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사전에 연구자가 기관에 전화를 하여 기관장에게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하였다. 동의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유치원 교사들에게 질문지 조사방법 및 응답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다. 각 교사들은 질문지를 각 가정으로 310부 배포하였으며, 연구자가 2주후 다시 방문하여 질문지를 280부 회수하고 261부를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첫째, 연구대상자의 개인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에 앞서 하위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위험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요인지수(VIF)등을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정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개방형 질문의 응답을 분석하기 위하여 질문주제를 따라 자료를 범주화하는 토픽코딩과정을 통하여 분

석하였다(Creswell, 2010). 즉,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중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 질문에 따라 중심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실시하며 자료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일반적 특성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양육효능감,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표 6>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양육효능감,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하위변인	N	최솟값	최댓값	M	SD
스마트폰 사용정도	일상생활장애	261	1.00	3.40	1.93	.52
	가상세계지향성	261	1.00	3.00	1.63	.51
	금단	261	1.00	3.25	1.88	.49
	내성	261	1.00	3.50	2.08	.56
	스마트폰 사용정도 전체	261	1.00	3.06	1.88	.45
양육 효능감	애정	261	2.20	6.00	4.48	.66
	일상체제조직	261	2.50	5.25	4.12	.48
	훈육	261	2.00	5.80	4.05	.85
	놀이	261	2.20	5.40	3.75	.62
	교육	261	2.00	6.00	4.46	.88
	양육효능감 전체	261	2.83	5.47	4.17	.53
사회적 능력	대인적응성	261	1.82	3.18	2.40	.27
	인기도	261	1.63	4.00	2.80	.37
	사회적참여	261	1.80	4.00	3.37	.44
	사회적능력 전체	261	1.86	3.61	2.86	.24

스마트폰 중독정도의 하위영역인 일상생활장애의 평균은 1.93, 가상세계지향성은 1.63, 금단은 1.88, 내성은 2.08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애정의 평균은 4.48, 일상체제조직은 4.12, 훈육은 4.05, 놀이는 3.75, 교육은 4.46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인 대인적응성의 평균은 2.40, 인기도는 2.80, 사회적 참여는 3.37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양육효능감의 관계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7>과 같다.

<표 7>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양육효능감의 관계

구분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	스마트폰 사용정도 전체
애정	-.345**	-.288**	-.263**	-.282**	-.343**
일상체제 조직	-.213**	-.232**	-.151*	-.183**	-.219**
훈육	-.418**	-.355**	-.363**	-.433**	-.459**
놀이	-.309**	-.248**	-.260**	-.296**	-.327**
교육	-.355**	-.314**	-.231**	-.345**	-.362**
양육효능감 전체	-.454**	-.392**	-.358**	-.431**	-.476**

** $p < .01$, * $p < .05$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중독정도 전체와 양육효능감 전체($r = -.476$) 간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정도 하위영역인 일상생활장애는 양육효능감 하위영역인 애정($r = -.345$), 일상체제조직($r = -.213$), 훈육($r = -.418$), 놀이($r = -.309$), 교육($r = -.355$)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정도 하위영역인 가상세계지향성은 양육효능감 하위영역인 애정($r = -.288$), 일상체제조직($r = -.232$), 훈육($r = -.355$), 놀이($r = -.248$), 교육($r = -.314$)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정도 하위영역인 금단은 양육효능감 하위영역인 애정($r = -.263$), 일상체제조직($r = -.151$), 훈육($r = -.363$), 놀이($r = -.260$), 교육($r = -.231$)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스마트폰 중독정도 하위영역인 내성은 양육효능감 하위영역인 애정($r = -.282$), 일상체제조직($r = -.183$), 훈육($r = -.433$), 놀이($r = -.296$), 교육($r = -.345$)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8>과 같다.

<표 8>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구분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	스마트폰 사용정도 전체
대인적응성	-.140 [*]	-.105	-.092	-.136 [*]	-.140 [*]
인기도	-.451 ^{**}	-.400 ^{**}	-.456 ^{**}	-.427 ^{**}	-.503 ^{**}
사회적참여	-.428 ^{**}	-.453 ^{**}	-.424 ^{**}	-.342 ^{**}	-.465 ^{**}
사회적능력 전체	-.520 ^{**}	-.481 ^{**}	-.493 ^{**}	-.467 ^{**}	-.565 ^{**}

^{**} $p < .01$, ^{*} $p < .05$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사용중독 전체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전체($r = -.565$) 간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정도 하위영역인 일상생활장애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인 대인적응성($r = -.140$), 인기도($r = -.451$), 사회적 참여($r = -.428$)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정도 하위영역인 가상세계지향성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인 인기도($r = -.400$), 사회적 참여($r = -.453$)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정도 하위영역인 금단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인 인기도($r = -.456$), 사회적 참여($r = -.424$)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스마트폰 중독정도 하위영역인 내성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인 대인적응성($r = -.136$), 인기도($r = -.427$), 사회적 참여($r = -.342$)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9>와 같다.

<표 9>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양육효능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ΔR^2	F	VIF
양육 효능감	일상생활 장애	-.975	-.220	-2.356*	.206			2.919
	내성	-.929	-.181	-2.136*	.235	.017	26.361***	2.426
	가상세계 지향성	-1.642	-.146	-2.012*		.012		1.780

*** $p < .001$, * $p < .05$

분석결과 분산팽창요인(VIF) 지수는 1.000-2.919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 하위영역인 일상생활장애, 내성, 가상세계지향성은 양육효능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장애는 양육효능감을 20.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성은 1.7%, 가상세계지향성은 1.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이들 변인은 양육효능감을 23.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10>과 같다.

<표 10>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ΔR^2	F	VIF
유아의 사회적능력	일상생활 장애	-.689	-.345	-5.111***	.313	.270	58.771***	1.713
	금단	-.717	-.271	-4.007***		.043		1.713

*** $p < .001$

분석결과 분산팽창요인(VIF) 지수는 1.000-1.753으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 하위영역인 일상생활장애, 금단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장애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27.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단 4.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이들 변인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3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에 대한 인식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질문지를 구성하여 3개의 질문 문항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토픽코딩과정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질문 내용과 어머니들의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이 갑자기 없어졌다면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개방형 질문 1의 결과

질문 1 : 스마트폰이 갑자기 없어졌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까?	
분류	빈도
'불편함에 대한 호소'하기	135
'어렵지 않은 적응' 인정하기	69
'상관없음'	36
무응답	21
전체	261

분석결과 어머니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불편과 불안, 답답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스마트폰의 대한 의존으로 초조와 불안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와 금단을 경험할 거라는 답변이 많았다. 반대로 괜찮다고 답한 어머니들은 오히려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거라는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둘째,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개방형 질문 2의 결과

질문 2 :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류	빈도
'사용금지령'내리기	73
'제한적 사용' 허용하기	145
'사용함' 허용하기	24
무응답	19
전체	261

분석결과 어머니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많았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어머니의 대답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성도 인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 자녀에게 미칠 건강과 정서에 대해서도 염려하였다. 또 사용하되 제한을 둔다는 어머니는 스마트폰에 대한 장점과 함께 단점도 함께 인식하고 있었다. 사용하게 한다는 어머니는 스마트폰에 대한 편리성과 함께 장점만을 보았다.

셋째, 자녀 앞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그 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개방형 질문 3의 결과

질문 3 : 자녀 앞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그 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류	빈도
'영향력'에 대해 인정하기	223
'영향력 없음'	19
무응답	19
전체	261

분석결과 어머니의 대부분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답변을 하였다.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을 살펴보면, 어머니는 자녀의 거울이므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유아가 놀잇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 자신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이 자녀와의 대화단절, 가족과의 관계,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 첫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스마트폰 중독정도 전체와 양육효능감 전체 간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개방적 질문 분석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어머니의 자녀 양육과 자녀에게 영향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다는 현은자·조메리명희 외(2013)의 연구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양육효능감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김지혜(2013), 배은혜(2014)의 연구와 유사하다. 스마트폰 중독정도 하위영역인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은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애정, 일상체계조직, 훈육, 놀이, 교육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정도 전체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전체 간에도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 및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박지애(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 이윤미(2014)의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이 많을수록 유아의 주의집중 및 자기조절력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유아의 정신건강에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영향을 미친다는 최정숙(201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현은자·박은미 외(2013)의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중독정도 하위영역인 일상생활장애, 내성, 가상세계지향성은 양육효능감(애정, 일상체계조직, 훈육, 놀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정도 하위영역인 일상생활장애는 양육효능감 하위영역인 애정, 놀이, 교육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가상세계지향성은 일상체계조직, 훈육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내성은 훈육과 교육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양육효능감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김지혜(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현은자·조메리명희 외(2013)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양육효능감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배은혜(2014)의 연구결과에서는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부적인 상관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긴 어머니일수록 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이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시간도 낮아지게 된다.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며 산만해 질 수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게 된다.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은 어머니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은자·박은미 외(2013)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고 멀티태스킹을 하는 어머니가 우울점수도 높게 나왔다고 하였다. 이주연과 장성예(2014)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격려, 한계설정, 자아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는 부적 관계가 나타났으며, 과보호, 허용 및 거부방임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김영은(2013)도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이 높으면 양육스트레스의 수준도 높다고 하였으며, 어머니의 자기통제력은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상관이 있었다. 스마트폰의 오랜 사용으로 자녀 교육에 있어 자신감이 낮아지며 문제 상황에 있어 적극적이기 보다는 회피하며, 자녀교육에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부모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은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인다고 하였다(김정호, 2010). 어머니의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을 줄이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이면서 의사소통 능력도 기른다면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조메리명희와 현은자(2014)는 스마트폰 중독예방활동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였다고 하였다.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부모교육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자신감을 얻는다면 가족과의 유대감도 높아질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정도 하위영역 중 일상생활장애, 금단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대인적응성, 인기도,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적 질문의 결과에서도 너무 이른 연령에 사용 시 스스로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유아 행동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유아는 어머니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혼자서 놀거나 아동 스스로 정서 인식에 어려움을 보이며,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 및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박지애(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윤미(2014)의 연구 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습관도 높았으며,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이 많을수록 유아의 주의집중 및 자기조절력이 낮아진다고 하여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하위영역인 일상생활장애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하위영역인 대인적응성, 인기도, 사회적 참여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금단은 인기도에, 가상세계 지향성은 사회적 참여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미치는 하위영역 중 일상생

활 장애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학교, 직장, 가정에서의 가족과의 갈등 등 생활의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이다. 금단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불안, 초조함을 느끼는 현상이다. 가상세계지향성은 대인관계에서 현실세계보다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가상적 세계를 더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자녀교육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불안한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면서 자율적일 때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가장 발달하였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면서 통제적일 때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조부월, 2009).

현은자·박은미 외(2013)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이영과 최윤희(2015)의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이 많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에서도 설명이 되었다.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정도는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이어지며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함께 언어·집중력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은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최정숙, 2014). 나용선(2013)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서지혜(2012)도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행복과 즐거움 등의 정서표현을 많이 보이고 화, 두려움 등의 정서표현을 적게 보일수록, 유아는 사회적 활동이나 친구관계에서 협력적으로 친구들을 이끌며 높은 사회적 능력의 행동특성을 보였다고 하였다(김여름, 2014).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여 올바른 양육태도를 보인다면 유아의 긍정적 사회적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며, 어머니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마트폰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습관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인식교육에 공헌을 한다. 더불어 스마트폰의 중독예방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에도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가치가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연령대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하고, 스마트폰이 아닌 대안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등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아 볼 수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연구의 보다는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유치원의 스마트폰 사용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과 지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확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들은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자기 보고 형식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주관적 판단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이나 질적 연구를 통하여 연구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정도(수준)을 중독의 정도라고 정의를 하면서 연구대상인 일반부모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잠재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중독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에 노출된 부모집단과 비노출된 집단간의 비교연구를 하는 것도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에 따른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탐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 모두가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도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연희(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병년·최홍일(2013).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9, 1-25.

- 김여름(2014). 부모의 성격특성 및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은(2013). 영아기 자녀를 둔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이영·최윤희(2015). 부모의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이 유아의 문제행동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을 매개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9(1), 139-158.
- 김정호(2010). 부모의 사소통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혜(2013).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양육태도,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미·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6.
- 나용선(2013).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집 이용 유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7(3), 32-53.
- 미래창조과학부(2015). 스마트쉽센터. <http://www.iapc.or.kr>에서 2015년 11월 10일 인출.
- 미래창조과학부(2015).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
- 박송림(201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애(2014). 유아와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은해(2014).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다사용: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지혜(2012). 고등학생의 개인, 부모, 또래 및 스마트폰 이용 동기 요인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구조적 관계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유진(2005). 아동의 수줍음,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혜성·김연하(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결정요인: 사회 인구학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7(5), 1-14.
- 성지현·백지희(2011).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K-EGSCP)의 타당화 연구: 영역별 양육 효능감과 관련 인지구조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135-150.

- 신의진(2009). 나는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서울: 걷는 나무.
- 연합뉴스(2015. 7. 8.). 스마트폰 보급률 83.0%...세계4위. <http://www.yonhapnews.co.kr> 에서 2015년 11월 23일 인출.
- 윤은미(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화(2013). 유아 부모의 스마트기기 사용정도와 유아의 공격성.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원석·성영화(2012).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한 어머니의 인식. **육아정책연구**, 6(1), 20-38.
- 이윤미(2014). 유아와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유아의 주의집중 및 자기조절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연(2011). 유아교육용 스마트폰 앱에 대한 부모 인식 조사: 유아의 행동패턴에 따른 부모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연·장성예(201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4(3), 61-79.
- 임경심·김수향·홍혜경(2014).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자기조절력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4), 203-221.
- 임명희·김성현(2014). 유아의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실태와 부모인식과 유아의 중독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4(4), 237-260.
- 임연정(2016).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특성(기질, 자기통제, 문제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여옥(2015).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109-129.
- 정은희(2008). 디지털기술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 59-63.
- 조메리명희·현은자(2014). 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 활동의 효과. **유아교육연구**, 34(5), 347-368.
- 조부월(2009).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일치유형 및 일치 여부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비교.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4), 93-119.
- 최정숙(2014).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양육효능감의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형성(2005). 양육효능감의 매개 역할: 양육행동의 인과관계 모형. **아동학회지**, 26(6), 51-365.
-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

-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2011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 현은자·김태영·조메리명희·박은미(2011). 가정에서의 디지털 모바일기기 사용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인식. **신앙과 학문**, 16(4), 245-266.
- 현은자·박은미·조메리명희·김태영(2013). 어머니의 스마트폰중독 수준 및 우울 점수와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3(5), 181-205.
- 현은자·조메리명희·조경선·김태영(2013). 어머니의 스마트폰중독 수준,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관계연구. **유아교육연구**, 33(3), 207-225.
- Coleman, P. K. & Karraker, K. H.(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 13-24.
- Creswell, J. W.(2010). *Designing and conduction mixed methods research*. CA: SAGE Publications.
- Doh, H. S., & Falbo, T. (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1),149-162.
- Meunier, J.-C., &Roskam, I. (2009). Self-efficacy beliefs amongst parents of young children: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5), 495 - 511.

·논문접수 8월 1일 / 수정본 접수 9월 5일 / 게재 승인 9월 26일

·교신저자: 안지령, 위덕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jrahn@uu.ac.kr

Abstract

The Effects of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on Parenting Efficacy and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i-Young Hur and Ji-Ryung Ah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parenting efficacy and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to find out the effects of the extent of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on parenting efficacy and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mothers of 3 to 5-year-old children in P city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280 questionnaires out of 310 were returned, and 216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except insincere ones.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22.0.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the analysis about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parenting efficacy and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showed tha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among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parenting efficacy and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Second, the effects of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on mothers' parenting efficacy indicated that sub-factors of smartphone addiction such as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tolerance, virtual life orientatio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including affection, daily system

organization, discipline, playfulness, teaching. Third, the effects on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by the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indicated that sub-factors of smartphone usage such as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withdrawal have an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such as personal relationship adaptability, popularity, social participation. Forth, from the analysis of mothers' recognition in smartphone addiction, mothers agreed that smarphone had an influence on their parenting.

Therefore, we could conclude that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have an impact o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not only awareness training but also parents' education for smartphone addiction is needed to practice good habits of smartphone usage. Also,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providing basic data for the future preventive study of excessive usage of smartphone.

Keywords: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parenting efficacy,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